

■ 집과 사람

도심속 고품격 타운 하우스 '첨단비버리힐즈'

자연과 공간이 함께 숨쉬는 도심 속 고품격 유럽식 타운하우스 '첨단비버리힐즈'가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빌라동과 단독주택 16세대가 지어졌고 앞으로 4만평 규모에 160~170세대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꿈의 타운 하우스 자연·이웃과 함께 친환경 공동생활

“햇살 가득하고 달빛 은은하며 별들이 쏟아지는 곳,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 파란 하늘을 내다볼 수 있는 곳, 새소리 들리고 강아지와 눈밭을 뒹굴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공간이 함께 숨쉬는 도심 속 고품격 타운하우스(town house) '첨단비버리힐즈'에 사는 최모씨의 자랑이다. 두달 전 최씨는 '첨단비버리힐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최씨의 꿈은 전원주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와 떨어져있고 보안문제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바로 입주했다.



■ 1%만을 위한 선물

광주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미래지향적 첨단기술과 이국적 문화가 공존하는 유럽식 타운하우스 '첨단비버리힐즈'가 광산구 첨단지구에 들어섰다.

현재 유럽의 지중해와 로마식 주택, 미국의 현대적 주택 등 이국적 주택 16채를 분양 중이다. 앞으로 4만평 대지에 160~170세대의 아름다운 주택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어갈 계획이다.

인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 과학고도 신축 이전해 온다. 또 전남대·조선대 산학캠퍼스도 있다.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인 것이다.

(주)청기와 김동성 회장은 “첨단비버리힐즈 프로젝트의 시작은 외국과 같은 자연 친화적 주택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일반적인 전원주택이 아닌 타운하우스를 추구, 자연과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자연 주택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주민 간 커뮤니티가 이뤄질 수 있는 동선의 흐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사는 '미래 공간' 실현이 주테마가 됐다.

■ 호남 최초 도심형 타운하우스

첨단비버리힐즈는 다세대 타입인 빌라동과 단독세대 타입이 있다.

빌라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한층씩 올라갈 때마다 집의 평수가 작아지는 복층구조를 따랐다. 1층은 91평, 2층 78평, 3층 68평, 4층 65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 정도.

특히 이들 면적에는 10~15평 정도의 테라스 면적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테라스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넉넉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단독세대는 로마스타일과 모던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등 3가지 형태로 지어졌다.

'지중해하우스'는 넉넉한 실내공간과 정원이 갖춰져 지중해의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유럽 문화에 고전의 웅장함을 더한 '로마하우스'는 현관을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장식해 그리스·로마시대의 신전을 연상시킨다. 현대적 외관의 '모던하우스'는 실용성을 강조했다. 지붕과 외

빌라동·단독세대 170세대 조성

단지내에 골프장·수영장 등 갖춰

담·도둑 없는 5단계 보안시스템

관에 쓰인 순수 아연은 물에 부식되지 않아 튼튼하고 경제적이다.

첨단비버리힐즈는 자연친화적 소재만 사용했다.

바닥에 황토 흙과 원목을 사용했고, 페인트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냄새를 없앴다. 원목마루는 한국전통의 천연 옷칠로 마무리해 맛과 건강을 중시했다. 욕실은 물과 벌레에 강하고 향기가 은은한 편백나무를 사용했다. 복층에 난방시스템을 깔고 시스템에어컨도 설치해 계절적 영향이 없도록 배려했다.

단지 내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호수, 꽃동산, 간이 컴퓨터 등을 조성해 가족은 물론 입주민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이국적 풍경, 영화속 주인공 된다

첨단비버리힐즈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국적인 풍경에 놀라고, 고급스러움에 다시 한번 놀란다. 길게 뻗은 열대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도착하면 다세대 주택 '테라스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틀에 걸맞게 방마다 설치된 멋스러운 테라스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이같은 이국적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외관은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식객' 등 한국의 흥행영화를 제작한 '세발자전거필름'이 차기작으로 기획 중인 '요트'라는 드라마를 첨단비버리힐즈에서 촬영하기로 예약돼 있다.

첨단비버리힐즈에는 담이 없다. 그리고 '밤손님'도 없다. 철통같은 보안시스템 덕이다.

첨단비버리힐즈의 보안시스템은 5단계로 진행된다. 1차가 뚫리면 2차가 막고, 2차가 뚫리면 3차가 막는다. 단지 외곽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건물에는 적외선 감지기와 동체감지기가 있다. 또 홈네트워크시스템이 갖춰져 보안 및 외부에서 통제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은 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첨단비버리힐즈는 도심과 근접해 있는 게 장점입니다. 흙을 밟고 산다는 자연친화적 전원주택의 삶을 사는 동시에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죠. 또 주말농장이나 시골의 별장과 달리 도심형 전원주택은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도심내 있다는 점, 대단위 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치도 높습니다.”

첨단비버리힐즈 주민이기도 한 김 회장은 자신을 회사 대표가 아닌 '비버리힐즈 촌장'이라고 불러달라며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마을을 꾸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첨단비버리힐즈' 빌라동의 내부 모습(위)과 조감도.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115억 번의 심박수에 맞춘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심장 건강
5분만 투자하면 심장 건강을 위한 HeartPlus ACD-10000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 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 건강을 위한
심장 건강을 위한 HeartPlus ACD-10000